

광양시,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교통편의 향상

등·하교 시간 배차 확대 등 시민 불편 해소 목적 개편

광양시는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내버스와 관련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진단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인화 광양시장과 최대원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보라 의원 및 읍면동별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 ㈜광양교통 등 35여 명이 참석해 노선개편안과 경영진단 결과에 대해 전달받았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시내버스 이용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이·통장 간담회, 시민과의 대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사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민원 및 불편사항 등의 의견을 추가로 접수 받았으며, 11월에는 읍·면·동별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노선개편 안에 반영했다.

이번 노선개편은 신규 대단지 아파트의 교통불편 해소, 기존 불합리한 노선의 개편 등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최대한 증진하고자 시내버스를 증차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구성됐다.

주요 노선 개편 내용으로 △함양지구-중마동 신규 노선 △광양읍 서회, 흥한에르가 등 노선 경우 △중마동 순환버스 확장 △태인-금호-광영-옥곡-광양읍 신규 연결 노선 △등·하교 시간 배차 확대 △옥곡면 환승정류장 환승시간 단축 등이다.

시는 최종 노선개편 안을 가지고 운수업체인 ㈜광양교통과 협의해 시내버스 11대를 증차하고 운수종사자 채용, 시간표 조정 등의 노선개편 작업을 착수해 2024년 상반기 중 단계적으로 버스를 투입해 노선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내버스 노선개



광양시가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진단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양시 제공

편으로 시민들이 더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노선개편을 통해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양시 시내버스 운행 노선은 2019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실시하여 전면 개편해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노선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인기’ 어린이 도서관 견학 프로 광양희망도서관, 올 일정 마쳐

광양희망도서관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매년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도서관 견학프로그램이 올해 일정을 모두 마쳤다.

20일 광양시에 따르면, 도서관 견학프로그램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4~7세 유아에게 도서관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이용 교육을 통해 올바르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는 방학 기간인 1월과 8월을 제외하고 10개월간 150회 운영됐으며, 193개 어린이집에서 2800여 명의 어린이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도서관 이용 교육과 함께 그림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해보는 ‘책 놀이 프로그램’이,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가상현실 속 동화를 체험해보는 ‘체험형 동화구연’이 진행됐다.

또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뿔다! 무지개 동극 공연’이 진행됐다. 공연은 지역 어르신들로 구성된 무지개 봉사 동아리에서 맡아 전래동화를 각색한 동극 공연과 오카리나 연주, 손가락 인형극 등 매회 다채로운 공연으로 진행돼 어린이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광양=안영준 기자

내년 영농기반시설 신규사업 장흥군, 도비 70억원 확보

장흥군은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과 경지정리(시설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신규사업 70억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규 사업 지구로는 ‘장동 진곡저수지 개보수사업’ (11억원), ‘부산 이곡저수지 개보수사업’ (24억원), ‘장평 어곡지구대 구획 경지정리’ (35억원)이다.

군은 2024년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를 통해 각종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를 착공해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저수지 개보수 사업은 지난 5월에 집중 호우로 인한 누수 발생으로 긴급복구를 추진하였던 장동 진곡저수지와 1945년에 축조돼 제방의 여유고부족 및 여·방수로의 붕괴위험이 있는 부산 이곡저수지 등이다. 장흥=김전환 기자



광양희망도서관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매년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도서관 견학프로그램이 올해 일정을 모두 마쳤다. 광양시 제공

순천시 ‘1845청년인재풀’ 워크숍 성황

청년 150여명 소통 및 친목 도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9일 청년센터에서 개최한 ‘1845 순천청년인재풀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1845청년인재풀’이란 각종 위원회, 청년강사 등 인력 충원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18~45세까지의 적합한 인력을 등록하는 제도로, 현재 150여 명의 청년들이 등록돼 있다.

이날 워크숍은 청년들 간의 소통과 공감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내년 인재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청년 공연,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으며, ‘자신을 브



순천시는 지난 19일 청년센터에서 개최한 ‘1845 순천청년인재풀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순천시 제공

랜드화하자’라는 주제로 JR금융연구소 조정란 대표의 전문가 특강도 진행됐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공연자·레크리에이션 강사 등이 인재풀 소속 청년들로 구성돼 역량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청년 인재들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며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보성다향대축제 2024~2025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보성군은 지난 19일 ‘보성다향대축제’가 2024~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자원, 지역 특산물,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관광 상품화한 전국 1200여 개 축제 중 연중 진

행한 전문가 서면·현장평가와 관광객 인지도와 만족도, 지역주민지지 호응도를 종합한 결과를 반영해 25곳을 선정했다.

지난 4월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보성다향대축제는 △찾아와 파기와 차 만들기 △보성티마스터컵 △보성에(愛)물들다(茶) △녹차치유(테라피) 등

핵심 콘텐츠를 보강·확장했다. 타 축제와의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축제 조직의 운영 역량 등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보성군은 앞으로 2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국비 8000만원 예산 △축제내용(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판촉(마케팅) △관광 수용 태세 개선 △대량자료(빅데이터)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양기람 기자

‘미인콜 택시 마일리지’ 시범운영 순천시, 내년 1월1일 출시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저렴하고 편리한 콜택시 서비스를 위해 20일부터 순천미인콜, ㈜아이나비M과 함께 ‘순천미인콜 택시 마일리지’를 시범 운영한다.

‘순천미인콜 택시 마일리지’는 자동결제제를 이용하는 승객들에 한해 적용되는 서비스로, 택시 요금의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하고 누적된 포인트는 다시 요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내년 1월1일 서비스 출시에 앞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시범 운영하고 이용자를 확보할 계획이다.

모바일 앱은 ‘순천미인콜’ 또는 ‘아이나비M’을 검색, 모바일앱 다운로드 후 자동결제 이용하면 요금 5%(최대 50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12월 생신 어르신 방문 축하 장흥읍사회보장협

장흥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현중·강경일)는 지난 19일 12월 생신을 맞은 독거어르신 세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축하 인사와 선물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올해 생일을 맞은 만 85세 이상의 저소득 독거노인 20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진행하고 있다. 장흥읍 새마을부녀회(회장 송애자), 파리바게뜨(대표 김선우)와 님프만이불·커텐(대표 김종근), 롯데칠성장흥대리점(대표 김재진)에서 각각 후원한 생신음식, 케이크, 이불, 음료, 후원물품을 함께 전달한다.

장흥=김전환 기자

상수원 수질개선에 집중 영산강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축사를 녹지로 바꾸면서 수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

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올해 수계관리기금 212억 원을 들여 토지매수사업을 벌였다.

토지매수사업은 상수원 상류에 위치한 오염원 토지를 사들여 수변 녹지로 만드는 것. 환경청은 주암호 등 광주·전남 지역 5개 광역상수원 담 상류지역에 위치한 축사 등 부지 535㎡를 사들였다.

박원재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상수원 수질개선과 지역민에 나은 환경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광양시, 여객·화물자동차 등

광양시는 12월 말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구역에 주차된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를 계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구간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으로 분류된 기존 단속 구간 외에 중마동 홈플러스, 해수사우나, 우림필류, 금호동 전남드래곤즈 축구장 원정팀 출입구 앞, 몰오브광양 옆 공지, 광양읍운전면허시험장·광양세미존서히스타힐스 방향의 도로이다.

시는 계도장 발부 차량 소유자(법인)에 밤샘주차 금지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적발 차량에 대한 자료를 누적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광양=안영준 기자